

## 11차시. 학습자의 눈높이를 맞추자! (2)

### 1. 자신감 전략 개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학습 실패로부터의 공포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실패와 불안에 대한 공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불안과 공포는 학습자들에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 장기결석과 꾸물거림(procrastination)과 같은 회피현상으로부터, 교실에서의 무례한 행동과 같은 반항적인 반응과 교실 밖에서의 공격이나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이러한 형태들이 극에 도달하게 되면 자살하는 수도 있다.

그럼, 교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더 높은 자신감을 개발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교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 본인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직장과 삶에서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흔히 자기 효능감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효능감은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말한다. 따라서 교사의 주요한 책무 중의 하나는 학습자들이 유능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능력이 유용하다는 것을 스스로 믿도록 하는 것이다.

#### ● 동기 전략을 개발할 때 지켜야 할 원칙

##### •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신감 상태가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은 우선 자신감이 너무 낮을 때 학습자는 '나는 아무리해도 안 돼'라는 무기력감에 빠져서 포기를 할 우려를 의미하며 또 하나는 너무 높을 때는 '그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야' 하면서 수업내용의 변화에 민감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 •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은 학습자가 자신 능력의 유용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자신감을 높인다고 하면서 단순히 행운에 의해 정답을 고르거나 하는 경험을 제공할 때는 오히려 자신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 • 자신감은 탄탄한 기초에서 시작된다.

-자신감은 탄탄한 기초에서 시작한다는 원칙은 특히 우리 학교 현장에서 주의할 점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뿔뿔망망하던 눈동자의 학습자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선행 학습에서 탄탄한 기초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을 고려한다.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을 고려한다는 원칙은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도달 가능한 변화의 범위를 고려한 수업내용의 제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눈높이 수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준비도를 고려하며 동시에 발전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 개인적인 통제감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개인적인 통제감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는 원칙은 너무 학습자의 통제권을 제한하지 말 것은 물론이고 소위 학습자 통제이나 자기주도 학습이니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등학생으로부터 고등학생으로 커나가면서 학습자들은 나름대로의 감당할 수 있는 개인적 통제의 범위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자율적 통제가 최고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2. 자신감 전략세트

● **일반적 개발 순서** : 성공기대→성공기회→개인적통제

● **유의점**

-가르치는 교과내용에 적합한 동기전략세트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인지적, 정서적 수준이나 상태를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개발 단계**

-1단계: 학습자의 자신감 유발이 필요한 내용인지 확인  
-2단계: 수업의 어떠한 단계에서 사용될 것인지 확인  
-3단계: 성공기대 유발을 위한 전략 확인  
-4단계: 성공기회 유발을 위한 전략 확인  
-5단계: 개인적통제감 유발 전략 확인  
-6단계: 자신감전략세트 완성